

2022년 09월 1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1편 1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91(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7장 11~21절 (구약p.767)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2.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3.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15. 이렇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이니이다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 말씀선포 / 하나님의 지키심

어제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석의 유래는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기원했으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추석을 맞아 더욱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18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과 전쟁과 태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오직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감시와 억압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읊은 호소합니다. 지금 읊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읊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오히려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1.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 읊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14절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 다.” 라고 했고, 19~20절에서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20절에서 “감찰하시는” 이란 히브어 “노체르”로서, 그 원형은 “나차르”인데 이 뜻은 “경계하다, 지키다, 위험으로부터 막다, 보존하다.” 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의 저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느냐고 감격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감찰하셔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살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29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공중의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 한 포기조차 자상하게 입히시는 좋은 아버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은 그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따뜻한 보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옴은 하나님의 눈이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지금 옴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징계하시기 위해 감찰하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여기 “단련하시나이까” 는 히브리어 “티크하넨누” 로서, 그 원형은 “바한” 이란 단어로 사실 이 뜻은 “조사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옴은 자신을 시험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감사하듯 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 있는 때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죄까지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훈련의 막대기를 드리곤 합니다. 옴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조사하고 시험하시는 귀찮은 일들을 계속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옴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인식할 때 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대적의 손으로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86(통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 폐 회 / 주기도문